

2017-CR-09-01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7-01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연구 : 북정마을과 행촌권 성곽마을을 중심으로

정호경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연구

: 북정마을과 행촌권
성곽마을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정호경

한국여성미술연구회 연구원

연구진(공동연구)

박성희

한국외국어대학교 BK21플러스
에스닉-코리아타운 도시재생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성곡마을의 독특한 지역문화자산인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성 확보 필요

지역 차별성·지역문화 다양성이 도시경쟁력으로 대두

세계화가 진행되고 탈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지역이 가진 차별성과 지역문화의 다양성이 도시 경쟁력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도시 활성화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도시의 역사문화 자원과 독창적인 지역문화 자원에 주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문화유산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표방한 곳일수록, 역사문화적 특성이 강화된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거주민의 일상적 삶과 생활이 상호 연계되는 커뮤니티의 형성은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 경쟁력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서 도시 내 역사문화 지역에서 유산과 인접해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중심의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는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물리적 활성화에 집중된 경우, 지역의 역사와 문화 훼손이 동반되어 지역적 특성과 장소의 고유성, 나아가 공동체 파괴가 이루어졌던 개발중심의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거주민의 보호와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한 문화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커뮤니티 기반 도시자원 보유

서울은 1394년 수도로 지정된 이후, 지금껏 수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성을 지닌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대표적인 옛 도시유적인 한양도성은 서울의 원도심권을 아우르며 주변 9개 권역, 22개 마을이 인접해 있는 역사문화적 자산이자, 우

리나라 근현대 도시문화를 상징하는 도시자산이다.

2013년부터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면서 한양도성의 성곽과 그 주변에 형성된 성곽마을이 서울의 중요한 도시자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들 지역은 문화유산과 인접한 곳까지 거주민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한양도성은 인접한 거주민들의 생활영역과 일체화된 장소적 의미가 있다. 또한 이들 유산의 진정성에서 오랜 세월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주민 지역의 보호와 포괄적 관리방안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성곽마을은 거대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곳으로 역사문화 및 자연자원을 포함한 독특한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장소이다. 이곳은 성곽마을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공동체의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극 수행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커뮤니티 자체가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과도 같은 무형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시유산 지역이다.

북정마을 행촌권 성곽마을은 커뮤니티 중심 지역 활성화 추진

서울시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도시화의 그늘로 자리했던 성곽마을은 한양도성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그리고 도시환경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철거되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도시화의 그늘에서 서울의 역사성을 증빙하고 한국의 근현대 도시생활문화의 집약체로서 성곽마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데에는 지역문화에 대한 성숙한 인식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성곽을 따라 유산과 일체화되어 공동체 문화를 지키고,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이어나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북지역에 위치한 북정마을은 한양도성 백악구간에 인접한 구릉지에 형성된 마을로 70~80대의 고령층 세대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30~4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오랜 시간 상호 유대관계를 이어오면서 도시지역에서는 드물게 이 지역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성북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화가, 문인, 음악가 등 예술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다. 따라서 한양도성이라는 역사자원 외에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혜곡 최순우 옛집, 화가 김환기와 김향안의 집터, 음악가 윤이상, 문인 조지훈, 박태원, 김광섭의 집터, 이종석의 별장과 이태준의 고택이 인접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하다. 북정마을 전체는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의 시적 공간이면서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예술자원을 다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한 지역이다.

북정마을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산신제, 정월 대보름 윷놀이, 메주만들기, 두부만들기와 같은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문화, 생활자원을 다각적으로 결합한 ‘월월축제’ 같은 지역축제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의 잔치’로 변화시켜 이어오고 있다.

종로구 행촌동을 중심으로 교남동, 무악동과 사직동 일부를 아우르는 행촌권 성곽마을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해 수려한 자연자원과 일제강점기 독립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 마을이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에서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텃밭을 가꾸던 지역문화에서 점차 본격적인 도시텃밭과 도시농업으로 발전시켜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으로 특화시키고, 농업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의 공유, 협력적 노동이 필요한 사업들을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속하면서 기존의 공동체 모임은 점차 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을 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하였다. 주민 왕래가 잦은 곳에 ‘행촌공(共)터’라는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연구로 북정마을·행촌권 성곽마을 커뮤니티 특성 파악

현장연구로 파악된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의 커뮤니티 특성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특성요소	성북 북정마을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정주(定住)적 소속감	·평상, 정자 등 생활영역 속에서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 ·평균 30년 이상 거주민 중심으로 지역소속감이 높음	·도시농업에 따른 농업지식과 노동력 공유에 의한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 ·평균 40년 이상 거주민, 노령 주민 중심으로 지역소속감이 높음
거주지역과 정체성(장소혼)	·북정마을의 장소 특성이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기여 ·문화유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으며 한양도성 지역의 관심으로 지역 자긍심 고양 ·거주기간이 긴 공동체 구성원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 신규거주민 포용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소극적	·별이 잘 들고 통풍 좋은 구릉지 등 자연자원은 특화된 정체성 형성에 기여 ·지역 애착심이 높으며 한양도성 방문객 때문에 역으로 지역가치에 눈뜬 ·도시농업 등 마을사업에 적극적인 공동체 구성원 중심으로 형성, 신규 거주민 포용에 적극적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	·주민 간 마을행사 및 축제 참여율이 높으며 생활환경 요소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주민화합축제, 마을해설사, 주민바리스타 교육 등 활발한 상호작용 ·‘노란곳간’ 등 마을 공용공간에서 반찬나누기
공동목표 추구를 위한 일체감	·북정마을 활성화에 대한 공동목표 추구, 개별방법에서 입장 차이 존재 ·마을의 역사성, 문화예술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체 의식이 높음	·도시농업, 양봉, 도시마켓 참여 등 마을 활성화에 대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사업화 시행 ·도시농업공동체에서 주민운영협의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공유, 발전 가시화 ·공동체의 이익과 배분에 대한 모색 활발

특성요소	성북 북정마을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자발적 참여의식 (주민조직 등)	·북정마을을 사랑하는 모임, ·북성회, 통친회, ·성북동새마을협의회, 성북동 마을협의회	·도시농업공동체, 일학마을 네트워크,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협의체, 교남동 주민자치 위원회
공동체 개방성	·원거주민의 신규주민에 대한 포용력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 ·신규주민은 예술가, 해외체류 및 유학경험자가 다수로 향후 공동체 문화에 변화 예고	·성곽탐방, 주민의 마을해설 등 외지인 대상 공동체 문화전파, 신규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성 확립에 적극적
협동적 거버넌스	·성북문화원, ·서울KYC도성길라잡이 등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필요 ·마을 활성화를 위한 외부지원 필요	·서울시 도시농업과, 서울시 농업위원 등 협력관계 활발 ·도시농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멘토를 영입해 사업과 연계 모색

(※)장소혼(genius loci): 콘젠(Conzen)의 장소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장소에 대한 자긍심을 의미하며 문화유산지역에 형성된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기여

두 마을은 문화유산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식에서부터 공동체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의식, 그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각자의 속도감으로 발전·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 지역활성화 주체로 지속가능한 도시활성화 토대

이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가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전제로 해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지역 활성화, 지역 문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둘째,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커뮤니티는 지역 자산을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여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셋째, 커뮤니티 활동은 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서 공동

체가 공유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그 해결방안을 창출할 수 있는가?

넷째, 고유한 지역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지역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위 질문들은 비록 그 응집력과 속도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 권 성곽마을의 커뮤니티 분석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

성곽마을은 유산도 있지만, 느리게 변하고 천천히 발전하지만 견고한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것은 인간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과 문화는 환경이자, 삶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배제되어 논의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도시 내 지역 활성화의 주체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활성화 방안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둘째는 국가단위의 거대 토목 및 건축중심의 사업에서 파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역문화의 말단인 공동체를 분석·연구하고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무형적 가치를 지닌 커뮤니티 특성을 분석·조망할 수 있었다.

셋째는 세계에서 손꼽는 역사를 지닌 거대도시 서울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아우르는 독특한 지역문화의 보고로서 성곽마을의 주요 대상지를 현장 연구함으로써 도시문화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역생활문화와 도시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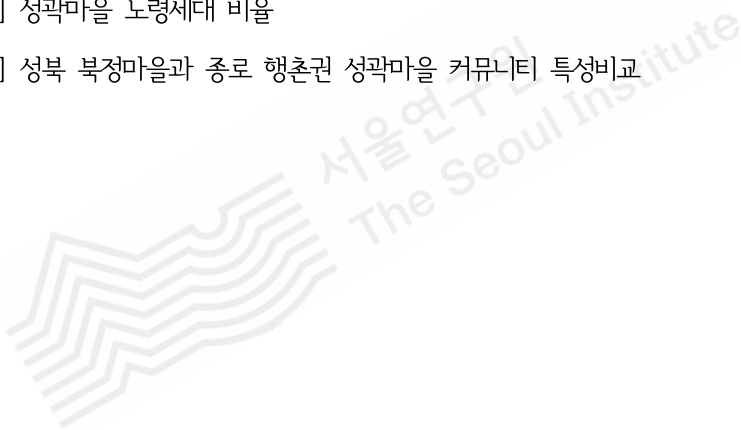
넷째는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요소로서 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화적, 인간적 가치의 회복과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토대연구를 제공할 수 있었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5
02 문화유산과 도시 공동체 형성	10
1_도시문화유산의 특수성과 문화 정체성	10
2_지역공동체와 마을만들기	14
03 성곽마을 커뮤니티 현황과 특성분석	22
1_성곽마을 재생사업과 공동체	22
2_문화예술 기반 공동체: 성북 북정마을	31
3_자연자원 기반 공동체: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52
04 결론 및 정책제언	70
1_커뮤니티 특성비교 및 연구 기대효과	70
2_결론 및 정책제언	73
참고문헌	77

표

[표 2-1]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개념 정의	15
[표 2-2] 공동체의 발달단계	17
[표 2-3] 마을만들기 성장단계 구분	18
[표 3-1]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29
[표 3-2] 성곽마을 노령세대 비율	34
[표 4-1]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커뮤니티 특성비교	71



그림

[그림 2-1]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 1751년, 성신여대 중앙 박물관(왼쪽)과 도성도(都城圖), 18세기 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 학연구원(오른쪽)	12
[그림 3-1] 성곽마을 권역도,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자료	22
[그림 3-2] 한양도성 성밖 구릉지 노후화된 주거환경(왼쪽)과 성곽마을의 저층 주 거지와 골목길(오른쪽)	33
[그림 3-3] 만해 한용운 선사 73주기 추모 다례제, 2017, 성북문화원(왼쪽)과 성 북동 야행, 저 별이 기억하는 밤, 2017, 성북문화원(오른쪽)	35
[그림 3-4] 북정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자원 심우장(왼쪽)과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무 전봇대(오른쪽)	36
[그림 3-5] 매년 정월대보름에 개최되는 민속행사 한마당	38
[그림 3-6] 마을회관에서의 공동체 모임(왼쪽)과 마을카페(오른쪽)	39
[그림 3-7] 오랜 거주기간으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주민들	44
[그림 3-8] 마을경관과 자연스럽게 스미듯 수리한 신규거주자 공간	45
[그림 3-9]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지 골목	53
[그림 3-10] 행촌권 교남동 지역의 아파트	53
[그림 3-11] KBS 제1TV '6시 내고향'에 소개된 행촌권성곽마을 도시농업공동체	56
[그림 3-12] 행촌공(共)터 1호점	56
[그림 3-13] 행촌공(共)터 2호점 '느린곳간'	58
[그림 3-14] 행촌공(共)터 3호점	59

[그림 3-15] 육묘장과 도시텃밭	59
[그림 3-16] 주민들이 생산한 꿀과 공동체 수상 상장	62
[그림 3-17] ‘도시재생GOGO마켓’에 행촌권 성곽마을 참가	64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글로벌시대 도시경쟁력과 지역문화의 중요성 대두

최근 국가단위의 역할은 축소되고 도시 및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지역이 가진 차별성과 지역문화의 다양성은 새로운 도시경쟁력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 가진 역사문화 및 자연자원과 같은 지역자산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표방하는 장소일수록, 역사문화적 특성이 강화된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거주민의 일상적 삶과 생활이 상호 연계되는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은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 경쟁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물리적인 재생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재생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물리적 활성화에만 집중된 경우, 지역의 역사와 문화 훼손이 동반되어 지역적 특성과 장소의 고유성, 나아가 공동체 파괴가 초래되는 등 이에 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는 곧 도시 활성화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해 새로운 대안적 논의가 촉구되고 있다.

도시 내 다양한 지역자산은 도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무수히 거론되고 있음에도 역사문화 지역의 경우, 유산과 인접해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중심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껏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기획, 실행된 바 있고, 나아가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의 특수한 지역자산과 생활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성곽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특성 분석은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시문화자산으로서 성곽마을 커뮤니티의 특성 연구

서울은 인구의 이동과 변화가 활발한 역동적인 도시이고 점차 시민사회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를 통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의식의 고양으로 삶의 터전에 대한 더욱 성숙한 의식이 태동하고 있다.

1394년 수도로 지정된 이래, 서울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오랜 역사성을 지닌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그에 걸맞은 품격있고 성숙한 도시 내 역사문화, 도시 자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표적인 옛 도시 유적인 한양도성은 서울의 원도심권을 아우르며 주변 9개 권역, 22개의 마을이 인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도시문화의 역사를 체현하고 있는 도시자산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면서 한양도성과 그 주변에 형성되었던 성곽마을은 서울의 중요한 도시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이들 지역은 문화유적에 인접한 입지적 요소 때문에 도시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노후 주거지와 고령층 거주민들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성곽마을은 문화유산을 포함한 지역유산과 거주민의 삶이 혼재되어 독특한 생활유산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도성과 거주민의 생활영역은 일체화된 장소적 의미가 있다. 또한 성곽마을은 오랜 기간 지역적 애착심이 확연한 마을 거주민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한양도성이라는 역사유적 못지않게 이들 공동체의 다층적인 커뮤니티 형성은 이 지역의 독특한 지역문화로 접근되고 보호될 필요가 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에서 이제껏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산업화 또는 외부 기획사가 연출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역사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 애착심이 강한 공동체 거주민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회적이고 지역성과 유리된 행사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행사의 주체적 참여자이자,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관점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주민 스스로 해당 지역문화의 적극적인 지지자이자, 주체적인 참여자, 최대의 수혜자로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도시 활성화 본연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근본적인 토대인 연구 대상지 두 곳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현장연구를 통한 대상지 커뮤니티 특성비교와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확대 필요

한양도성의 바깥쪽 성벽에 형성된 거주지는 통칭해서 성곽마을이라고 하며 이곳은 거대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곳으로 역사문화 및 자연자원을 포함한 독특한 지역성을 지닌 장소이다.

이 연구는 문화유산과 생활유산이 혼재된 성곽마을의 중심요소로 독특한 지역 특수성을 지닌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성곽마을의 권역별 지역성은 이미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성북구 북정마을과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이 이번 연구의 주요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북정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문화예술인들의 거주지였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궁에 납품하기 위한 메주를 제작하던 역사를 이어받아 마을주민이 직접 장을 담그고, 그 생산품을 나누거나 판매하는 등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있는 지역이다.

행촌권 성곽마을은 근대시기 실크(비단) 생산을 담당했고 일찍이 커피문화를 받아들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한양도성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도시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주민이 참여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도시자산을 지역문화의 특성으로 정착시키는데 공동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특징적인 지역이다.

또한 두 곳의 대상지를 현장연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유대감이 깊은 공

동체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포괄하는 지역 커뮤니티로 성장·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공동체의 커뮤니티 특성에 대한 연구야말로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토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는 공동체,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포괄하기 때문에 공간적, 지역적 단위로 사회집단의 특성을 갖추고 사회조직체로 성장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공통된 관심을 공유하고 동질적인 공간영역 안에서 다층적인 개인 상호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단순 거주민 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생활영역 안에서 지역적 특색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커뮤니티를 형성한 주요 대상지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이 연구는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인물 조사 등을 시도한 1단계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자원조사를 시도하였다.

특히 대상지역 거주민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 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업은 분명 지역 커뮤니티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환경, 역사문화적 자산, 자연자원 나아가 생활문화를 관통한 지역적 특성이 서울의 여타 지역과 차별화된 것임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전체 흐름을 정리하였다.

또한 ‘작은연구’의 특성상 대상지 현장연구를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진행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거주민들의 삶과 생활 모습 자체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적 자산

(living heritage)이자, 무형적 가치가 있음에 주목하여 현장연구 사항을 커뮤니티 특성분석 요소로 정리·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오래 거주한 주민비율이 높고 고령 거주민이 많은 공통된 세대별 특성을 보이는 두 대상지역이 역사문화 자원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자연자원을 커뮤니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차이가 있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이러한 현장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간단하지만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문화자원의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사례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공동체가 사회문화적 상호작용과 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커뮤니티 기능을 점차 발전, 확장시키는지를 정리하였다.

2) 연구방법

대상지역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 등을 이용해 기초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접근의 주요 개념을 설정하고 해당지역에 형성된 공동체가 어떤 특화된 커뮤니티 성격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한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커뮤니티 연구를 위한 세 가지 이론적 배경인 (1) 사회, 문화적 네트워크의 관점, (2) 도시인류학적 관점, (3)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재현의 관점에서 기초연구가 진행되었다.

(1) 사회적, 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커뮤니티는 아래의 몇 가지 특성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

- 지역 및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고 의견을 공유·수렴하여 형성된 유대감을 기반으로 함

- 지역 정체성에 개인적, 집단적 이입의 수준이 높음
- 온/오프라인의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의견공유 채널의 형성
- 공용공간 등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
- 마을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창출과 개입

(2) 도시인류학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커뮤니티 특성은 다음의 커뮤니티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

- 공동체 형성의 인간적 가치와 의미화 수준이 높음
- 전통적 문화인류학적 관심보다 지역성과 도시문화에 집중한 커뮤니티 접근이 쉬움
- 이동성(urban mobility), 장소만들기(place-making), 공공공간(public space)의 형성, 도시정책과 거버넌스 등 도시에서 삶의 조건과 커뮤니티 형성의 관계성에 대한 맥락 제공

(3) 공동체 정체성의 사회, 문화적 재현으로 보는 측면은 아래의 특성으로 도출될 수 있다.

- 도시 내 독특한 지역문화를 보유한 공간 및 장소와 거주민의 상호관계
- 다양한 계층, 연령, 사회적 존재로서 거주민 간 유무형의 상호작용
- 지역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개인의 소속감을 매개하는 요소로서 문화와 사회적 관계의 역할
- 지역의 자연적 자산, 역사문화적 자산, 사회적 자산의 유산적 가치와 도시자산으로서의 활용과 재현 방식의 특수성
- 지역 거주민과 연구대상지 간의 정체성 가시화 기준 제공
- 문화적 매개, 사회적 소통 및 정체성 형성의 촉매자로서 커뮤니티 활동과 지역행사를 접목하는 이론적 근거 제공
- 공동체의 기억과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하며 기록하는 일련의 행위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몇 가지 커뮤니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들이 도출되었으며, 지역의 특화된 자산과 커뮤니티 형성의 문제를 전문가와 마을거주민, 예술가 대상의 심층 인터뷰 등의 현장연구로 진단하였다.

대상지역 거주민의 복합성, 지역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인터뷰해줄 적합자 선정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으며, 소수지만 이 연구의 방향과 범위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5회), 마을 주민 및 마을 행사 참석자 대상의 간략 인터뷰(7회)가 이루어졌다.



02

문화유산과 도시 공동체 형성

1_도시문화유산의 특수성과 문화 정체성

2_지역공동체와 마을만들기

02 | 문화유산과 도시 공동체 형성

1_도시문화유산의 특수성과 문화 정체성

1) 도시문화유산의 특수성과 문화적 가치

세계화가 진행되고 탈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이 가진 차별성과 지역문화의 다양성이 도시 경쟁력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일수록 도시화 이면에 존재했던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전면부에 부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는 성장과 변화를 반복하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방문하는 거주민과 방문객이 존재하며 유무형의 역사문화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자, 문화적 복합체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는 원도심의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처하는 도시유산의 가치에 주목해 왔다. 이는 도시의 역사가 동시대 사람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생동하는 도시문화의 현재 가치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

도시자원의 다수가 문화유산인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개념 인식도 변하고 있다. 즉, 문화유산에서 진정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대상은 유형의 물리적 실체를 지닌 건축적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임을 지각한 로저스(P.Rogers)의 언급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²⁾

1) 유네스코(UNESCO), 이코모스(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유럽의회(The Council of Europe)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기구는 문화유산과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상호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개념에 대해 “우리는 구조물을 유지하는 일이 문화의 지속성과 바람직함을 유지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문화이다.”, P. Rogers, 1982, “Conservation and implementation”, R.Zetter(ed.), *Conservation of Buildings in Developing Countries*, p.15.

도시 거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영역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역사문화도시
는 산재한 문화유산이 보존을 통해 과거지향의 밀봉된 관광 패키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과 연결되고 고려되
어 지역문화로서의 가치, 도시유산의 새로운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유산은 도시의 현재 모습과 문화유산의 연결점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지역
에 사는 거주민과 방문객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측면도 포괄한다. 이들이 체험
하고 기억하며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도시유산은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유무형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매개되고 전달되어 해당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자 가치로 각인된다.

이로써 오래된 지역일수록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문화는 해당 거주민과 함께
논의될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현재의 도시유산적 관점으
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장소일수록 파괴하는 대신 보강하
고 시장논리에 내맡기기보다 섬세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 어떤 장소로 대
체할 수 없는 대체불가의 탁월한 문화적 깊이와 가치를 지니는 장소라면 그에
걸맞은 성숙한 관점의 도시유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2)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도시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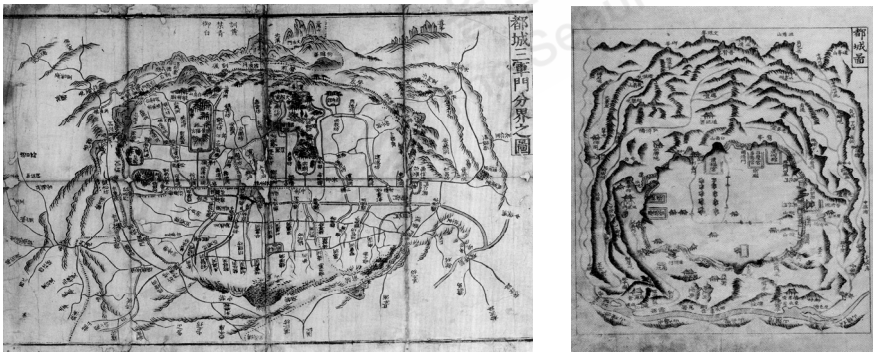
서울은 인구이동과 변화가 활발하고 점차 문화에 관한 관심과 그를 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며 환경의식의 고양으로 삶의 터전에 대한 더욱 성
숙한 의식이 태동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표방하는 곳일
수록,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 해당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 서울은 1394년 우리나라의 수도로 지정된 이래, 현재에 이
르고 있으며, 서울의 지역적·역사적 근원을 현재까지 이어주는 매개는 한양도성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양도성은 옛 수도 한양의 도시방어를 목적으로 건립

된 도시성곽이자, 변화하는 거대도시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도시유산이다.

한양도성은 1396년 도성 축조를 시작한 이래 총 18.6km에 이르는 도성이 완성되었고 사대문(四大門)과 사소문(四小門)을 잇는 성벽이 완성되었다.³⁾ [그림 2-1]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한양도성의 옛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방어의 목적으로 제작된 만큼 정확한 구간별 특이점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2-2]는 18세기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심에 있는 지금의 원도심 지역은 한양도성의 경계영역으로 표시되어 공간적 요소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도는 도성 내부를 부감해서 보여주는 한편, 도성 밖에 있는 환경적 요소를 동서남북의 여러 지표가 될 만한 공간정보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현재 서울의 도심권으로 편입된 지역의 공간적 원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2-1]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 1751년, 성신여대 중앙박물관(왼쪽)과 도성도(都城圖), 18세기 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오른쪽)

3) 1394년 궁궐, 종묘, 사직이 완성되었고 수도방위를 위해 1396년부터 총 59,500척(18.6km)에 이르는 도성공사가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약 20만 명의 장정이 동원되었고 1422년에는 32만 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였다. 한양도성연구소, 2015, “한양도성의 건설”, 『서울 한양도성』, pp.37-38.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도시재건이라는 수난의 역사 속에서 18.6km에 이르는 원래의 성곽은 현대 13km 정도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 변화와 부침에 따라 한성부, 경성부, 서울시에 이르는 한양도성이 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600년 역사의 축적이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거대도시,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이다.

한양도성은 동아시아 성곽의 축조원리와 유교적 치세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역사적 결과물이며, 건립 당시 도시방어의 기능적 목적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한 도시재건과 발전의 기록물이며, 성곽 주변의 오래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문화의 발원처이다.

과거와 현재, 옛것과 첨단,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들이 혼재한 도시의 모습은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문화적 양상이 아니다. 시간적, 문화적 다양성이 혼재되어 있는 서울은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도시유산적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혼재한 곳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문화적 방점을 두고 논의될 수 있을까? 결국 도시유산이 추구하는 가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넓은 스펙트럼의 기본 토대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한양도성 주변의 마을, 성곽마을의 가치

역사적으로 한양도성의 바깥쪽 구릉지를 따라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였다. 서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주거지가 마련되었고 미처 택지개발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성벽을 따라 인접한 구릉지로 토막촌이 들어서기 시작했다.⁴⁾

4) 전우용, 2014, “성 밖 마을의 형성”, 『2014 한양도성 마을 특별전, 도성과 마을1』, pp.34-35.

이렇게 형성된 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겨났으며 산동네, 달동네, 뚝골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릉지 마을에 도시유산의 정체성을 부여한 것은 이른바 성곽마을이라는 명칭이다.

성곽마을은 거대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곳으로 역사문화 및 자연자원을 포함한 독특한 지역성과 역사성을 지닌 장소이다. 특히, 문화유산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표방한 곳일수록, 지역주민의 정체성에 문화유산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자생한 이 마을은 도시미관을 헤치는 정비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한양도성과 함께 새롭게 평가되고 보호되어야 할 유무형의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역사문화도시와 관련해, 도시 구조, 장소의 독특성, 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이르는 다양한 논의에서 문화유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다.

유네스코 및 여러 국제기구는 역사유산의 보전에 대한 권고안에서 도시라는 맥락 속에서 문화와 공동체의 보존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⁵⁾

2_지역공동체와 마을만들기

1) 지역공동체 개념과 발달단계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는 일반적으로 “정주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급속한 사회화 및 도시화 진전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공동체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로서 새롭게 복원되어야 할 대상”이다.

5) 에일린 올바슬리, 2012, 「역사도시 투어리즘」, p.45.

[표 2-1]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개념 정의

구분	지역 공동체의 정의
이재열 (2006)	· 정주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박병춘 (2012)	·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권 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
김성배 (2011)	· 일정한 지역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의 집단
정기환 (2006)	· 지리적 경계를 가지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유대와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
곽현근 (2012)	·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서 살면서 주민 상호 간에,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
이종수 (2012)	· 인간이 만족할 모둠살이를 할 수 있는 친밀권역
전대옥 외 (2012)	·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소속감)을 가진 일정한 지역(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
서울시 (2012)	·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 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
Hillery (1955)	·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의 집단
Toennies (1955)	·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인간의 본원적인 욕구로 결합되는 지역의 공동사회
Mattessich, et. al. (1997)	· 지역공동체 :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 간 자신들이 사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Duncan (1989)	· 다양한 공간수준에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
Master et als. (1988)	· 협동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대면 접촉하며 상호작용을 살아가는 인간의 집단

자료: 행정안전부, 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15.

이처럼 지역공동체 개념은 그 정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목표나 가치, 지역성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는 한양도성과 같은 고유한 문화유산이 있는 일정한 지역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지역공동체의 현실에 착안해서 “한양도성에 근접한 성곽주변의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생활 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마을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감을 가진 집단”으로 지역공동체 개념을 정의하려고 한다.

공동체의 발달단계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참여활성 단계는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이성적 및 감성적 결합 또는 연계로 소속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둘째, 공동체성 구비단계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동이 빈번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셋째, 준주민자치적 단계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형태로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기이다. 넷째, 준단체자치적 단계는 대의 기능까지 갖춘 공동체로서 행정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역량을 갖추고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시기이다.⁶⁾

6)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 pp.57-58.

[표 2-2] 공동체의 발달단계

발달단계	키워드	사업주체별 내용	주민참여 단계 ⁷⁾
1단계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에 대한 애착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으로 소속감 및 편안함 등의 느낌이 들게 함	3, 4, 5
2단계 공동체성 구비 단계	유대감, 호혜성, 응집력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키며,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과 긍지를 가짐	6
3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	운영체제, 재원, 서비스 공급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개선을 통해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 모하는 단계	7
4단계 준단체자치적 단계	준대의성, 시설공급, 행정권한 이관	주민들만으로 자치가 가능하며, 행정은 지 원자로 촉매자 기능을 하는 단계	8

자료: 김찬동 외(2012)

2)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성장단계

‘마을만들기’는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를 직역한 말로,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의미한다. 1950~196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대도시문제, 환경문제, 농촌지역 과소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시민운동이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주민과 전문가의 협조적인 활동을 얻는 마치즈쿠리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지역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의 지원을 받는 형식의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로서 시민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 마을의 사업에 참여한다.

⁷⁾ Sherry R. Arnstein(1969)은 주민참여 사다리 이론에서 주민참여의 정도에 따라 8단계로 구분하고, 그중에서 6단계부터 8단계를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단계라고 일컫고 있다.

한국의 마을만들기 활동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화 과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국토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를 시작으로 하여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⁸⁾

서울시는 2000년 북촌마을 가꾸기 이후 2009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 계획, 휴먼타운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으로서 마을만들기가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⁹⁾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성장단계는 주민의 참여수준 및 역할과 특성, 파트너십 형태, 사업의 내용 및 진행속도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¹⁰⁾

[표 2-3] 마을만들기 성장단계 구분

구분	성장단계				분류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진안군(2008)	기초형성기	기반구축기	발전기		사업내용, 참여주체 등
김선기(2007)	주민참가단계	주민기획단계	주민주도단계		주민참여의 수준별
송승현(2008)	준비단계	구상단계	실천단계	관리단계	참여프로그램, 참여주체의 지원사항 등
이규선 외(2012)	도입기	형성기	발전기		참여주체, 사업전략 및 성격 등
마쓰오(2003)	초기단계	성숙기	발전기		참여주체별

자료: 이규선 외(2012) 재구성

8) 신중진정지혜, 2010,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6권 4호.

9) 김세용 외, 2013,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도시정보』, (371), pp.3-20.

10) 여관현, 앞의 책, pp.59-60.

3)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마을만들기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마을개선을 꾀하는 과정이며, 지역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규범을 바탕으로 호혜성을 가지고 공동협력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은 수동적이고 인위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마을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주민 간의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호혜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마을주민 상호 간에 배움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개별사례들을 통합하여 공동체 회복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둘째,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주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되살리고 조율함으로써 마을의 문제를 주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터득할 수 있다. 셋째, 단순한 실적과 수치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효율성 위주의 성과가 아니라, 마을에서 구성원 간의 호혜성, 마을의 활력과 시너지 증대, 그리고 새로운 민관협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¹¹⁾

11) 여관현, 앞의 책, pp.60-61.

03

성곽마을 커뮤니티 현황과 특성분석

- 1_성곽마을 재생사업과 공동체
- 2_문화예술 기반 공동체: 성북 북정마을
- 3_자연자원 기반 공동체: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03 | 성곽마을 커뮤니티 현황과 특성분석

1_성곽마을 재생사업과 공동체

1) 성곽마을 재생사업과 지역 정체성

성곽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주거지로 마을특성과 정체성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포괄한다. 성곽마을의 범위는 물리적으로는 도성에 연접하여 도로 및 지형 등으로 분리된 마을로서, 제도적으로 성벽으로부터 120m(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경계 및 기존 정비사업의 경계를 고려하고, 주민들이 하나의 마을로 느끼고 활동하는 커뮤니티 활동영역,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된 마을의 유래와 특성을 가진 주거지 범위를 고려한 9개 권역(이화·충신, 행촌, 부암, 다산, 명륜·혜화, 성북, 삼선, 광희, 창신), 22개 마을(1,672천㎡)이 해당한다.



[그림 3-1] 성곽마을 권역도,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자료

한양도성 안쪽에 있는 성곽마을 가운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재생 방식으로 역사와 삶이 공존하는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을 함께 공유하고, 주민 중심으로 지역 자산을 특화한 마을재생사업이 성곽마을 재생사업이다. 주민의 삶과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된 곳은 성북구 장수마을이었다. 2012년 한양도성의 낙산구간에 연결한 장수마을은 재개발예정구역에서 해제되고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마을환경을 정비해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수마을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에 연결한 오래된 마을들의 상당 부분이 주택재개발구역 혹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양도성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었으며, 한양도성이라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연접주거지의 가치를 새로이 평가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등 한양도성의 유산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서울의 근현대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주택유형과 골목길 등 주거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생활유산인 성곽마을 주거지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하면서 마을의 특성과 거주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재생 사업이 시작되었다.¹²⁾

성곽마을 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권역별로 마을 특성이 묻어나는 지역 자산을 활용해 마을 정체성 강화, 한양도성과 조화로운 경관 관리, 주거지로의 안정성·지속성 강화, 마을관리방안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마을특성화 모델 구축,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주도로 사업공감대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주택개량비용 지원 확대이다.

12) 서울시, 2014,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p.9.

2) 권역별 성곽마을의 도시유산적 특징

서울시는 최근 2년여간 7개 권역 성곽마을에 대한 마을의 역사, 도시형태 및 생활 문화자료조사, 주민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집」(2017년 2월)을 발간했다.¹³⁾ 이 보고서는 2015년부터 재생계획을 수립 중인 ‘이화충신권’, ‘행촌권’, ‘부암권’, ‘다산권’, ‘혜화명륜권’, ‘삼선권(369마을)’, ‘성북권(북정마을)’ 등 7개 권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권역별 성곽마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화충신권

‘이화충신권 성곽마을’은 빼어난 도심 조망경관과 대학로와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인이 다수 거주하며, 서울시 최초 연립주택단지이자 주거사박물관인 ‘이화동 국민주택단지’(현재 104채 중 90채 존치)가 잘 보존되는 등 ‘예술과 문화가 숨 쉬는 하늘동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화충신권은 조선시대 5대 명승지로 손꼽힐 만큼 산새가 빼어나 많은 문인이 찾아 풍류를 즐긴 곳으로, 석양루, 조양루, 이화정 등 왕족 저택과 정자가 있던 곳이다. 조선왕실에 우유를 공급하던 유우소(乳牛所)가 있었고, 우유를 재료로 한 ‘타락죽’이 왕실과 관세가에 보양식으로 제공되었다. 왕실, 세도가에 공급되던 최고의 배추 생산지인 ‘방아다리 배추밭’, 청국에 볼모로 갔던 효종에게 맛있는 동치미를 담가줬던 흥덕이에게 하사했던 ‘흥덕야밭’ 등이 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무분별하게 지어진 토막촌, 판자촌을 정비하고, 주택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연립주택단지인 ‘이화동 국민주택단지’를 건설하였지만, 노후화로 빈집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을 최근 주민 스스로 마을박물관 형태로 전환관리를 통해 서울에서 유일하게 그 모습이 잘 보존된 중요 자산인 ‘살아있는 주거사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다. 2000년 후반부터 문화예술인들이 유입되어, 주민들

13) 불교공뉴스, “서울시, 성곽마을 7개권역 생활문화 기록집”, 2017-02-19.

과 함께 매년 ‘이화 마을박물관축제’ 등을 여는 등 지역문화 보존과 주민화합을 꾀하고 있다.

(2) 행촌권

‘행촌권 성곽마을’은 조선 후기 자생적인 한양도성 바깥마을로 근대 서울 실크 생산의 중심지이자, 한국 커피문화의 발상지이며, 4대문안 농산물을 제공하던 경작지이기도 하였다. 마을 외곽으로는 사직단, 경희궁,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 경교장 등이 있으며, 마을 내부에는 딜쿠사와 바로 옆 600년가량 된 행촌동 은행나무를 비롯해 홍난파 가옥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반면, 민가는 조선 후기부터 나타난 자생적인 한양도성 바깥마을이다.

1924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내 동리 명물’ 시리즈에서는 교남동 명물로 대장간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이 경기감영, 경기중영, 북일영 등 군영이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며, 1884년 잠상공사(蠶桑公司)가 설립되어 경희궁 후원에 뽕나무 수천 그루를 심은 이래, 행촌동 일대는 근대 서울 실크 생산의 중심지였고, 유한양행 건물 뒤편에는 브레상 집터가 있었는데, 프랑스사람 브레상은 딸감사업을 하면서 무악재를 넘어오는 나무장수들에게 ‘화살통만한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건네며 흥정을 붙인 것으로 유명하다. 양탕국으로 불린 커피가 대중화한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행촌권은 한국 커피문화의 발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에도 ‘남으로 창을 내겠소’의 김상용 시인, ‘감자’를 쓴 김동인 작가가 작품을 다수 남겼으며,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과 최초의 여기자로 알려진 추계 최은희 선생도 이곳에서 꽤 시간을 보내는 등 행촌동은 ‘문인과 학자의 마을’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경사지 특성상 많은 일조량, 여유공지, 저층주택 옥상 등을 활용해 도시농업 시범마을로 특화되어 가고 있다.

(3) 부암권

‘부암권 성곽마을’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조선시대 도성 안의 치열한 현장에서 한걸음 벗어나 사회, 문화, 정치를 논하는 중심이었던 안평대군의 ‘무계정사’가 있던 곳으로, 몽유도원도(안견)의 실제 배경이기도 하다. 부암동이라는 지명은 세검정(洗劍亭) 쪽 길가에 높이 2m의 부침바위(付岩)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 특히, 무계동은 자하문 밖 서쪽 골짜기에 있던 마을로 수석이 좋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소위 부암동의 최초 주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안평대군의 ‘무계정사’가 자리 잡으면서 조선시대 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현장에서 한걸음 벗어난 사회, 문화, 정치를 논하는 중심이 되었다.

부암동 및 신영동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한지 생산지였고, 중국에 공물로 보내는 종이, 왕실과 관청용 종이, 과거 시험용 종이 등의 대부분 이곳 소산이었다. 또한, 부암동은 성북동과 더불어 18세기 이래 옷감을 짜서 햇볕에 말리는 표백업의 중심지였고, 동아일보(1928.5.13.)에 의하면 창의문 밖은 ‘경개는 아름답지만 토척지박(土瘠地薄)하여 농사는 잘되지 않고 오직 과수 재배에는 적당하여 능금이 잘 되는 곳’으로 알려져 1940년대까지도 여름이면 능금을 사러 오는 서울시민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현재 이 지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예술가가 거주하면서 단순한 문화예술 활동보다 삶과 깊숙이 맞물려진 다양한 켜의 문화예술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며, 주체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도심 속 자연마을’로 지역 정체성을 유지·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4) 혜화명륜권

‘혜화명륜권’은 조선시대 유일한 대학촌이자 하숙촌이었던 지역의 특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조선왕조 최고 학부였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인 반촌(泮村)지역으로 문묘와 성균관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주된 생업은 하숙업과 숙박업이었다. ‘반촌(泮村)’이란 문묘 양옆으로 흐르다가 그 앞에

서 합치는 물길을 ‘반수(泮水)’라고 하는 데, 이 두 물길 주위에 형성된 마을을 반촌이라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반촌’은 조선시대 신성시되던 문묘와 성균관 때문에 치외법권지역이었고, 18세기 말에는 경모궁(서울대병원)까지 반촌의 경계로 삼았다. 1920년대 후반 ‘반촌’ 대신 ‘학교촌’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1930년대부터는 ‘신문화촌’이라고 불렸고 지금에 이른다.

조선시대 이 지역 주변에 유명했던 ‘흥덕사’와 송동 일대의 넓은 앵두밭이 있었고, 흥덕사를 올라가는 골짜기에 따라 흥덕동천이 흐르고, 조선시대 대학자인 우암 송시열의 집도 있다.

(5) 다산권

‘다산권’은 도성 밖 남산자락에 자리 잡은 지역으로 도시민의 일상이 살아있는 남산아랫마을이다. 광희문(수구문)은 도성 안의 상여를 밖으로 통과시키던 문이었기 때문에 문밖에는 신당(神堂)이 많았고 신당동의 동명은 신당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문밖 신당동은 신당이 밀집한 무속 중심 지대였기 때문에 북, 장구, 징, 팽과리, 부채 등의 무구와 유품, 목기 등의 제기류를 제작하는 사람도 많았으며, 조선정부는 훈련도감 창설 직후, 도감병을 정예병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른 군영의 병사들보다 우대하며 고급 면포를 지급하였고 이를 띠, 대님, 땀기 등으로 염색, 가공하여 내다 파는 등 군병과 그 가족들의 부업활동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들며 살아온 서민주거 마을이었다.

1930년대까지 이 마을은 대부분 논과 밭이었다. 6·25 이후 실향민이 내려와 판잣집이 조성되었으며 1960~1970년대에 주택개량 및 양성화 조치 이후 저층 주거지로 형성되었다.

(6) 삼선권(369마을)

‘삼선권 369마을’은 넓고 평평한 들판지역으로 조선시대부터 군사훈련장이자 운동장으로 최초 축구경기, 자전거 경주대회가 열렸던 곳이다. 혜화문 밖 동소문동,

동선동 일대를 포함한 넓은 평평한 들판이었던 ‘삼선평’의 지명은 하늘에서 내려 온 ‘옥녀’가 세 신선과 놀았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삼선평’은 20세기 초까 지도 흰 모래사장과 잔디밭이 펼쳐진 한적한 농촌지대로서 인가조차 드물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군사훈련장이자 운동장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경기와 최초의 자전거 경주대회가 열렸던 곳이었다.

2013년 주민 동의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삼선6구역)에서 해제된 후 대안이 모색되었다.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연구실이 ‘주민참여 재생사업에서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고 이곳은 2014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주민들은 2014년 말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커뮤니티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려고 ‘도성하우징 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또한, 한성대, 청년예술가들과 협업, ‘예술로 물드는 성곽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지역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7) 성북권(북정마을)

‘성북권 북정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일제 강점기 대표적 문인촌이자,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의 교류가 일어난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메주를 쑤어 궁궐에 납품한 곳으로도 유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도 마을주민이 직접 생산한 된장을 판매하며, 월월(月wall)축제, 산신제, 원두막 지붕올리기 등 다양한 마을활동을 하고 있다. 북정마을 일대는 60년대 김광섭 시인이 사랑과 평화에 대해 노래한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고전과 현대가 공존하는 달동네이며, 서울시가 선정한 2013년 우수마을 공동체로 뽑힌 곳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자연지형과 계곡, 복숭아나무 등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풍류객이 많이 찾았고, 정계 혼란을 피해 문인, 시객들의 은거 수양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의 대표적 문인촌이자 부호들의 별장지대로서, 해방 직전에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의 교류가 일어난 지역이었다.

3) 성곽마을 공동체 사업

지난 수십 년 동안 성곽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은 전면 철거 정비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개발 방식은 기존 마을의 경관과 커뮤니티를 급격하게 해체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주거지정책의 방향이 개발방식에서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민선 6기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복원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중심, 주민주도, 기존 공동체를 존중하는 방식인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이 활성화되었다.¹⁴⁾

[표 3-1]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구분	2017년		2018년	
	사업명	모임(단체)명	사업명	모임(단체)명
1	혜화동 성곽마을 주민문화축제	혜화동 문화축제 추진협의회	함께 걷는 성곽마을	walking214
2	인왕산 사람들의 퍼즐맞추기2	인왕마을 네트워크	다시보자 新(신), YOUNG(영), 洞(동)	新YOUNG
3	다산성곽, 더불어 밥상	밥 짓는 마을	행복을 더해주는 행복플러스 성곽마을 문화 활동	한양도성 행복플러스
4	재미있는 한양도성 강좌 및 사진전	한양도성 행복플러스	국악소리 울려 퍼지는 도성마을	소리나무가족 국악오케스트라
5	한양도성 역사교육 및 알리기사업	낙산성곽 지킴이	충신 아름드리	충신마을계획단
6	함께 걷는 성곽마을	walking214	인왕산 사람들의 퍼즐 맞추기 3	인왕마을 네트워크
7	다산 메이커 공예교실	다산 마님들	이리 오너라	흥혜라

¹⁴⁾ 서울시, 2014, 앞의 책, p.25.

[표 3-1 계속]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구분	2017년		2018년	
	사업명	모임(단체)명	사업명	모임(단체)명
8	반촌의 유쾌한 동행을 위하여	혜화동 유쾌한 동행	창창(창신동노래, 푸른 노래)	창창
9	이토록 멋진 마을, 한양도성	동문서답	이화동 성곽 지킴이	이사모, 이화동을 사랑하는 모임
10	충신안테나	충신성곽마을 주민협의체	부암동 성곽마을 창의(彰義)사업	부암동 성곽마을 주민공동체
11	부암권 성곽마을 알리기	부암동 알리미	나도 주민이다	이화동 문화지킴이
12	행촌 공감 마을해설사 양성	행촌공감 마을해설사	다산 커피향기 출동	다산 맘스 커피
13	이화마을 문화지킴이	이화마을 문화지킴이	다정한 다산 성곽마을 축제	다산 성곽마을 주민협의체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이처럼 한양도성 성곽마을의 정체성 확보, 인근 지역민이 지녀야 할 자
금심 회복과 세계유산적 가치 공유 및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보존 활동 등에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곽마을에는 이를 함께 가꾸어갈 수 있는 사
람들과 주민협의체, 주민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및 사회문화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성곽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지역 재생사업의 주체이자 변화된 서울시 성곽마을의 정책
방향의 핵심인 공동체에 주목하고, 성곽마을의 범위 내에서 주민 공동체 활동
이 활발한 지역,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 성곽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은 거주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길고, 지역
토박이의 노년층 비율이 높으며, 지역자원의 공동체중심 활용 특수성이 높다. 이
러한 공통점 외에, 공용공간 등 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 속도, 거버넌스 구성
에서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어, 두 지역을 대표 사례지로 선정해 커뮤니티 특성
을 위한 현장연구를 시행하였다.

성북 북정마을은 ‘월(月)월(wall)축제’, 산신제, 정월대보름 민속 율놀이대회 등 다양한 마을 사업과 행사를 수행하면서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며, 이 때문에 2013년도 서울시 우수마을 공동체로 선정되었다.

한편 행촌권 성곽마을은 최근 지역 재생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행촌공(共)터’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특화마을을 목표로 주민들이 함께 하는 텃밭과 양봉장·육묘장 운영 등 주민조직과 공동체 활동이 주목받는 곳이다. 이 연구는 이 두 대상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활동가 인터뷰,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마을 및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_문화예술 기반 공동체: 성북 북정마을

1) 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북정마을은 행정구역상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26-103번지 일대, 구역면적은 약 55,800㎡의 지역으로 세대수는 약 510가구, 500~6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¹⁵⁾ 이곳은 물리적으로 한양도성의 일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보존지역의 기준인 성벽으로부터 120m 경계지역이 포함된 공간적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문화유산이 인접한 개발제한지역의 특성 때문에 노후 주거지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주택의 노후화, 기반시설의 미비 등 주로 생활편의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었고 주택재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차이가 계속 이어져 온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면서 유산의 보존만이 아니라, 인접지역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¹⁵⁾ 심영선, 2014, 「한양도성 인접 노후주거지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통합적 재생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p.28.

도성 인근의 주거지역인 성곽마을의 도시유산적 가치도 함께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면서 주변지역의 가치와 효과적인 보존관리가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⁶⁾

북정마을이 속한 성북지역은 지역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북쪽을 의미하였으며 이곳은 예부터 산수가 빼어나 조선시대 도성민들이 자주 찾아 심신의 휴식을 취한 장소로 알려져 왔다.¹⁷⁾ 도성밖에 성곽마을이 형성된 것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농촌에서 기반을 잃고 상경한 이농민과 시구개정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 수해와 재해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의 도시유입이 증가하면서 국유지나 사유지에 가건물을 지어 형성된 마을에서 기원한다. 도시 내 언덕진 경사지, 성벽 아래, 철도변, 하천변 및 다리 밑 등에 집단 거주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성곽주변은 구릉지의 특성상 기존 거주지가 아니었기에 대표적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에 이른다.¹⁸⁾

한양도성 외곽에 구릉지에 형성된 저층 주거환경의 모습을 띠고 있는 북정마을에는 대부분 30~4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민이 다수 살고 있어서 마을에 대한 애착과 이웃 간 신뢰감을 바탕으로 독특한 거주문화가 형성되었다.

16) 서울시, 2014, 앞의 책, p.18.

17) 성북문화원, 2014, "성북동의 유래", 「도심속의 무릉도원 성북동」, p.29.

18) 서울시, 2014, 앞의 책, pp.23-24.



[그림 3-2] 한양도성 성밖 구릉지 노후화된 주거환경(왼쪽)과 성곽마을의 저층 주거지와 골목길(오른쪽)

이후 북정마을은 서울의 도시팽창과 개발역사 속에서 도시개발과 지역 주택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상지로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성곽마을은 한양도성이라는 역사문화자원과의 인접성,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마을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독특한 공동체 가치에 대한 보호가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 활성화 대상지로 부각되고 있다.

2) 북정마을의 인구 및 거주민 현황

성곽마을이 형성된 9개 권역 내 22개 마을은 총 47,358명, 21,42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권역별 인구밀도에서 성북지역은 16,254명/㎢로 성곽마을 평균 인구밀도인 31,247명/㎢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¹⁹⁾ 또한 주거형태에서도 대체로 단독주택이 밀집한 형태로 주택 간 경계도 좁은 골목길로 구획되어 있어, 주거지역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¹⁹⁾ 서울시, 2014, 앞의 책, p.29.

[표 3-2] 성곽마을 노령세대 비율

성곽마을 권역	연령별 세대주		
	20세 미만	65세 미만	80세 미만
이화·충신권	0.0	73.9	26.1
창신권	0.2	80.1	19.7
삼선권	0.1	75.2	24.7
성북권	0.0	76.0	24.0
명륜·혜화권	0.1	78.1	21.8
부암권	0.0	69.9	30.1
행촌권	0.2	75.6	24.3
다산권	0.1	80.2	19.7
광희권	0.0	78.6	21.4
평 균	0.1	76.4	23.5

자료: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2014, p.29.

오래된 거주민들이 사는 성곽마을의 노령화 지수는 142.5로 서울시 평균(82.7)보다 월등히 높으며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종로구(131)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²⁰⁾ [표 3-1]의 세대주 비율표를 보면, 북정마을이 속한 성북지역의 경우, 연령별 인구 수준은 전체 성곽마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성곽마을 평균을 웃도는 한편, 고령 세대주 비율이 이화·충신권, 삼선권, 행촌권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북정마을이 속한 성북지역은 65세 독거노인 중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편이며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저소득층 노인비율이 48.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자가 거주민 대비,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등의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²¹⁾

²⁰⁾ 서울시, 2014, 앞의 책, p.29.

²¹⁾ 서울시, 2014, 앞의 책, p.30.

북정마을은 70~80대의 고령인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세입자의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도 높아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주민이 많고, 오랜 기간 상호 유대관계를 이어나온 지역주민 비율도 높아, 도시지역에서는 드물게 이 지역만의 공동체 형성의 주요 토대를 이루고 있다.

3)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공동체

성북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화가, 문인, 음악가 등 예술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북정마을은 한양도성이라는 역사자원 외에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혜곡 최순우 옛집, 화가 김환기와 이상의 옛 연인 김향안의 집터, 화가 김기창과 박래현 부부의 집터,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 음악가 윤이상, 문인 조지훈, 박태원, 김광섭의 집터, 이중석 별장과 이태준의 고택이 인접해, 문화예술 탐방루트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정마을 전체는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의 시적 공간으로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예술자원이 다층적으로 교차하는 문화예술 자원의 층위가 상당히 두텁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만해 한용운 선사 73주기 추모 다례제, 2017, 성북문화원(왼쪽)과 성북동 야행, 저 별이 기억하는 밤, 2017, 성북문화원(오른쪽)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만남의 공간인 정자와 평상, 무더위 쉼터와 세 곳의 노인정에서 이웃 소식과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북정카페, 북정이발소, 비둘기 쉼터 같은 곳에서 마을과 관련한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싹 틔우는 자생적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곳에는 서울에서 더는 보기 어려운 나무로 된 전신주조차도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정도로 마을 곳곳 도시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탁월하다.



[그림 3-4] 북정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자원 심우장(왼쪽)과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무 전봇대(오른쪽)

북정마을이 가진 문화 자원은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형성된 독특성과 구체성이 생활문화 전반에 강하게 스며있으며, 탁월한 문화적 가치인 한양도성이라는 역사 자원 지역의 문화예술자원과 함께 이 지역의 무형적 속성, 즉 살아있는 문화자원의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

1960~1970년대의 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북정마을은 마을명칭에서 비롯된 공동체 활동으로 ‘메주만들기’, ‘두부만들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지역의 주민자치 모임인 ‘북정마을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북사모)’의 김경동 사무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전에 궁에서 쓸 메주를 이 동네에 권리를 줘서 메주를 관에 바쳤는데 이것이 마을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메주를 쑤면 사람들이 여럿 모여 북적북적 거리고, 메주 끓는 소리도 북적북적 거리고 그래서 북정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몇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을축제 때) 메주만들기 외에 콩으로 된 음식이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두부더라고요. 그래서 맷돌 준비해서 어린 학생들이 그거 돌리는 걸 굉장히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북정마을에 메주 쑤는 권리를 줬다는 내용은 『성북동포백혼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造契完文節目)』(서울역사박물관 소장)에도 확인되는 사항이다. 조선시대 이곳 주민들에게 혼조업을 하게 했는데, 마을에서 북적북적 메주 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 북적골이라는 마을명칭의 유래를 추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도성의 북쪽 성북동에 둔진(屯陣)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해 거주하게 한 뒤 시전의 포(布, 베), 목(木, 무명), 저(苧, 모시)와 같은 것들을 삶아서 별에 말리는 포백(曝白)일을 담당하게 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하게 했다는 내용이 문서로 남겨져 있다.²²⁾ 이로써 도성 밖에 거주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도성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판매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이어받은 마을행사를 복원한 사례로는 음력 10월 초하루에 행하는 ‘산신제’와 음력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민속 율놀이대회’ 등이 세시풍속에 맞춰 거행되는 주민참여행사이다. 지역의 역사성을 마을행사로 살려나가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현장연구 동안 다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22) 김문택, 2014, “성북동포백혼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造契完文節目)”, 『2014 한양도성 마을 특별전, 도성과 마을1』, p.37.

원래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네에 거주하던 무속인이 거행하던 행사를
 북사모가 주관하는 마을 통합의 행사로 이어받은 사항은 주목할 만하다.

“10월을 상달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쉽게 말해 무속인에게 맡겨서 거행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연세가 들어서 자식들이 모셔 가면서 더 이상
 마을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었죠...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주민끼리 분란
 이 있었고 이게 산신제를 안 하니까 이런다 하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주로 마을 제일
 어른 되는 분 중에서 노인 회장님을 모셔서 초헌관, 그다음에 아헌관,
 종헌관까지 다 맡아서 하게 됐어요. 어른들이 차례로 절을 하고 우리가
 제복까지 만들었어요.”

- 김경동 북사모 사무장

마을의 안녕과 단합을 기원하는 마을행사는 정월 대보름에도 지역주민은 물론이
 고, 북정마을을 찾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월 대보름 행사로까지
 확대되었다.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기부금을 받아 진행되는 정월 대보름 윷놀이 행
 사는 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한 해의 시작을 모두 함께하는 마을만의 절기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림 3-5] 매년 정월대보름에 개최되는 민속행사 한마당

북정마을이 문화예술 중심의 지역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문화예술 전문가와 주민참여형 축제였던 ‘월(月)월(Wall)축제’의 역할이 크다. 국민대학교 이혜경 교수에 의해 2009년에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문화예술을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화합을 도모하면서 북정마을의 주변 문화자원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축제 기간 동안 시화전, 공연, 메주만들기, 두부체험 등이 실행되었고, 수년간 국민대학교와 협력관계를 이어오던 행사는 2011년부터 주민자치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개발하고 주민주도의 마을행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정마을의 공동체는 그 나름의 지속성을 가지고 독특한 유대감과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이루며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6] 마을화판에서의 공동체 모임(왼쪽)과 마을카페(오른쪽)

현장연구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한 공동체 가치를 발현하고 주민중심의 가치발현을 통한 북정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4) 북정마을 지역공동체 특성 분석

마을은 일정 기간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적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시간적 경험을 통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연구자가 가장 주목한 점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

의 마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곳을 자신들만의 문화가 있는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노후 주거지가 많은 이 지역의 활성화에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문화자산을 실제적인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성곽마을에 있는 9개 권역을 대상으로 ‘마을의 가치공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했던 마을활동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개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지역활동가 C와의 인터뷰(2018년 2월 6일)

Q. 마을의 가치공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느끼셨던 마을 거주민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A. 주민들의 연대 의식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화 이전에 생겼던 마을에서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서로 끈끈하게 맺어지는 게 있었죠. 북정마을은 산 밑에서 농사지으면서 여러 가지 퇴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똥골’이라고 불렸어요. 밀집된 가옥들 때문에 화재나 여러 안전사고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들이 철거돼 환승형 도로가 생겼는데, 이게 소방도로죠. 여러 개발의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주민들이 여전히 마을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정체성에 관한 것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Q.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는 성곽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생기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외부인들에 의해 기획이 돼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마을이 가진 정체성과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가 매우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새로운 활력이 되지 않을까요?

A. 비슷하게 이화마을은 내부 동력이 없어서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이 되면서 이런저런 변화를 주도했죠.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것들이 문화예술 자원으로 발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완전히 이식되어서 예술인들 마음대로 하게 되죠.

Q. 그렇다면 마을 내부의 자생력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A. 이게 속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실제로 성장하려면 오랜 시간 그들의 욕구를 찾아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처럼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주민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되면 그런 활동에 따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마을 해설사처럼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어르신들이 마을을 잘 알고 있으니, 이런 중간 조직이 교육과 코디를 병행한다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죠.

Q. 마을주민 모임을 개최했을 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A.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근간으로 하잖아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북정마을은 주민간담회에 27명 정도가 왔었는데, 주로 주민중심의 자율모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행촌마을은 그에 비해 직능단체의 성격이 강해서 마을조직이 강한 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재생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북정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A. 이곳은 다양한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상대 설문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옥상 있는 집이 꽤 있어서 ‘장독대 분양사업’이라든가, 메주, 간장, 고추장 같은 장을 만들어서 판매, 배송해서 지역 소득에 이바지한다든지, 역사문화자원이 좋은 지역이니 B&B 사업, 주민참여의 박물관 공작소 같은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정마을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의견수렴 기회를 여러 번 가졌던 C활동가와의 심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동체를 형성했고, 생활의 불편함으로 자리 잡았던 한양도성의 성밖 마을의 요소가 지금은 도시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어 특화된 요소가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요소는 지역주민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정마을의 지역주민이 느끼는 공동체의 특성을 마을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마을행사 등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마을 원로 K, 북정마을이 좋아서 새롭게 이곳으로 이주한 예술가 Y와 L을 통해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1) 유대감 및 친밀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세대주 비율이 높은 이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던 점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적 장소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다. 소방도로로 확보된 환상형 도로를 운행하는 3번 마을순환버스 노선을 따라 북정마을을 한 바퀴 도는 짧은 동안에도 노인정 3개, 공원이 1개, 정자 및 평상이 4개, 마을카페와 북정이발소 등이 있어 생활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이웃 간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었고 크고 작은 마을행사를 치르면서 구성원 간 친밀감은 마을 전체의 유대감으로 발전되었다.

마을 원로 K와 새롭게 북정마을에 거주하게 된 예술가 L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즘 신도시에 가면 앞집에 무슨 사건이 나도 몰라요. 우리는 여기는 누구 하면 어느 집, 혹은 그 집의 손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예요. 동네에 결혼이나, 초상 같은 일은 온 동네가 금세 다 알게 되죠.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전혀 나하고는 성도 틀리고, 오직 그냥 같은 곳에 사는 마을주민일 뿐인데 다 참여하고 걱정하고 도와줘요.”

“이 마을은 공동체의 유대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정자나 노인정 같은 곳에 오셔서 놀고, 같이 밥 해먹고, 서로 나눠 먹죠. 저도 할 수 있는 거는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더라도 인사드리고 얘기 나누고 하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정말 익명처럼 스쳐지는 존재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2) 정주(定住)적 소속감

북정마을 지역주민 중에는 평균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마을행사에서 만났던 대다수 분이 어려서부터 마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나, 북정마을에 시집을 와서 할머니가 된 분이 대다수였다. 정월 대보름 마을행사에 서 도움을 주고 있는 할머니 세 분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70대로 비슷비슷한 연배인데, 이곳에 시집와서 이제껏 40년 이상 살았지. 이제는 원래 고향보다 이 마을이 내 고향인 것 같고 여기 이 할머니가 내 형제와 다름없다고 생각하지. 오늘도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마을행사에 와서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 먹이는 거 하고 있어. 식구가 따로 있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노는 게 식구지.”



[그림 3-기] 오랜 거주기간으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주민들

(3) 거주지역과 공동체 형성

북정마을 주민들은 마을풍경의 일부를 이루는 성벽과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도성 북쪽에 위치한 마을명칭과 유래처럼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에 장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힘입어 지역적 자부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을 원로 K와 북정마을이 좋아서 이주하게 된 지역작가 L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북정마을은 한양도성을 꼭 상징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한양도성이 우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밑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사시던 심우장이 있죠. 이런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개발 제한을 받아왔어요. 서울시의 다른 오랜 지역은 재개발하면 싹 밀어버리고, 고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문화재도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했죠. 그런 아픔도 많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문화잖아요. 이 삶 자체가.”



[그림 3-8] 마을경관과 자연스럽게 스미듯 수리한 신규거주자 공간

“복합적이긴 하지만, 일단 저 한양도성이 있는 게 엄청난 메리트죠. 그래서 이 집을 수리하고 창문을 만들 때에도 앉았을 때 저걸 볼 수 있는지를 많이 고려했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지형과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도드라지지 않고 마을과 스며들도록 집을 수리했어요.”

(4) 공동체 정체성

북정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느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북정마을을 사람들이 규정하는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런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에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맥락 속에서 공동체가 오랜 거주자들의 동질적인 응집력으로 보이는 집단적 성격보다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웃과 마을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와 비공동체 구성원 간의 구별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사항은 마을거주민 M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북정마을에는 이곳에 오래 살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은 조금 변화가 생겼지. 난 어려서부터 이곳에 살아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있던 자리며, 이런 것들을 흔히

깨끗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은 잘 모르지. 여기 서 있는 이 거리도 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었어. 저 위에도 습기가 많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저 위까지 집이 있잖아.”

오래 거주했고 노인층 거주민을 중심으로 초기에 형성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체성은 마을의 옛 모습, 그곳의 역사를 얼마만큼 기억하는가가 구성원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잠시 북정마을에서 살았던 작가 Y는 북정마을의 공동체는 형성되어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거주민과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북정마을은 어르신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분들은 마을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주시고, 또 우리도 당연히 피해를 안 드리고, (오랜 거주민들과의 문제 등)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만족하는 편이었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했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 어떨지 많이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5) 문화적 상호작용

마을 원로 K의 이야기

“이 자료는 한양도성과에서 만든 건데, 우리 동네에 대한 소개가 나온 겁니다. 다 영문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참여한 자랑스러운 행사가 ‘월월축제’예요. 1,2회는 국민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고, 작년에도 했어요. 또 매년 산신제를 하는데 사물놀이를 하는데 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공동으로 지내죠. 기억에 남는 건, 지금은 고인이 된 할머니가 어른들 째째돈이라고 하잖아요. 천 원짜리를 내면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인데, 아들 이름으로 해달라고 주셨죠. 비록 천 원이지만 1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서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음복이라고 남은 막걸리에 떡하고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잔치가 되는 거죠”

작가 Y의 이야기

“제가 알기에는 ‘서울괴담’이라고 원래 연극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아래쪽에는 영화 쪽 일도 하고 사회운동가였던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연극을 함께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 예술가 L의 이야기

“‘서울괴담’처럼 이 마을을 주제로 연극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작가한테 맡겨요.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작가 레지던시를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정마을에 있는 이야기나 북정마을에 있는 재료,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은 퍼포먼스 같은 것을 바깥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마을 어르신들과 직접 연계해서 미술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동네 오면,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잘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꼭 작가들이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뭘 한다는 것을 강요하고 하는 것보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고 교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6) 사회적 상호작용

마을 원로 K의 이야기

“이게 우리 북정마을의 엽서인데, 우리는 콩할머니라고 하는데, 된장 만드는데 할머니예요. 지금 이 할머니가 만든 메주, 된장 주문해서 사가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홍보물을 줘서 함께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분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마을에서 이어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거주 예술가 L의 이야기

“제가 먼저 사는 곳이 연희동인데, 그런 곳에는 옆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도 비켜사는 데 여기서는 김치도 얻어먹어요. 또 우리 집에 살구나무가 있는데, 여름에 살구를 따면 나눠 드리기도 하고, 잼을 만들어서 돌려요. 작가들이 모여서 살구 잼을 만들고, 각자 나눠 갖는데, 이게 하나의 제의처럼 몇 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살구란 과일이 좀 특별한데 봄에는 꽃이 참으로 예쁘고 여름에는 과일을 우리에게 줘요. 하루 이틀 정도 모여서 잼을 만들고, 동네 할머니들에게 나눠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7) 공동목표 추구를 위한 일체감

마을 원로 K의 이야기

“우리가 한양도성 네트워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도성마을로서 우리 역할도 있어요. 북정마을은 백악구간인가 그렇고 바로 위에 숙정문이 있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제가 백악구간 위에서 내려오는 곳까지 안내하고 했어요.”

거주 예술가 L의 이야기

“마을 미화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외부인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벽화를 그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획일화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서로가 협동하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적어도 이 마을을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아요.”

(8) 자발적 참여의식

마을 원로 K의 이야기

“마을 축제나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마을 조직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주민들이 ‘북정마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줄여서 ‘북사모’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북정’이라고 비영리인테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이런 마을조직이 생겨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러내게 되었습니다.”

거주 예술가 L의 이야기

“저희는 대부분 조용한 사람들이고 술 먹으며 어울리고 그런 걸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은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새롭게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집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동네 주민에게 부탁해요.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 하는 거여서, 가격도 절대로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한 것과 같은 방식도 좋은 거 같아요. 이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도 서로 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는 거죠.”

(9) 공통 가치와 공동체 의식

마을 원로 K의 이야기

“신도시는 돈만 있으면 1년만 있으면 판 세상으로 변해요. 바둑판 같은 길에다가 상냥갑 같은 아파트, 이건 돈만 있으면 금방 돼요. 우리 동네는 인위적으로는 절대 못 만듭니다. 돈 들여서는 이런 동네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정서까지 만들 수는 없어요. 짝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꼬불꼬불한 시골 골목길 같은 것들, 서로 가깝게 이웃한 사람들끼리 생긴 이런 정서가 좋은 거죠”

거주 예술가 L의 이야기

“저는 이 마을 자체가 갤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분 개발을 추진하는 곳에서 제가 있는 이곳만 봐주고 길 건너 앞쪽은 부수겠다고 하면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이 마을 때문에 같이 있는 거고 그게 이 마을 공동의 가치인데 저 혼자만 봐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10) 공동체 개방성

마을 원로 K의 이야기

“요즘 마을에 외부인들이 제법 많아요. 예술가들이 있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자연을 좋아해요. 한성대입구역과 여기는 온도가 3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곳의 공기가 좋습니다. 봄 되면 여기에는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리죠. 서울 시내에서 그런 걸 어떻게 듣습니까.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들과 이곳의 장소적 장점도 얘기하지만, 이 동네 들어오셨으면 이 동네 사람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행사에도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도 같이 호호해서 참여하면 젊은이들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우리보다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되지는 않아요. 정서는 억지로 권유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절실히 느낍니다.”

거주 예술가 L의 이야기

“저희는 미술을 하는 작가들인데, 우리 전에는 연극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왜냐하면 대학로도 가깝고, 방값도 싸고, 이래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서울괴담’이라는 분들이었죠. 이분들이 임대료 등의 문제로 떠나가고 그 이후로는 정자 앞에 있는 <갤러리 이끼>처럼 미술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저쪽 무허가 집은 프랑스 부부가 있고요, 동생도 독일에서 작업하는데 이쪽이 좋아서 집을 사서 수리를 마쳤어요. 아래쪽 코너에 있는 건축사무소에는 예일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고, 우리 집 건너편에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들어

온 친구입니다. 또 저기 종점 가는데 유치원 있는 곳, 거기 분들도 두 분 모두 독일 박사세요. 오히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이곳을 보고 있고 굉장히 좋아해서 들어온 경우죠.”

지역활동가 C의 이야기

“마을의 구성원들 때문에 특유의 정체성이 형성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많아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인들이 점점 들어오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등자내몰림)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들죠.”

(11) 협동적 거버넌스

북정마을은 ‘복사모’등 마을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 생겼지만, 구성원이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새롭게 유입된 젊은 거주자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은 높지만, 개발문제를 저지하는 문제에 좀 더 집중되고 있었다.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많았지만,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활동가 C는 이제까지 행해진 사업중심, 일회성 용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활동가 C의 이야기

“중간 조직이 있어 마을 주민들의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 예술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전문가 결합의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성장 속도는 느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위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들만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다시 말해 주민들의 정체성에 근간한 문화예술적인 재생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

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를 담보로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지속 가능성이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는 일자리라든가, 여러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의 배분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고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3_자연자원 기반 공동체: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1) 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성곽마을 행촌권역은 행촌동을 중심으로 교복동, 무악동과 사직동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돈의문(서대문)과 창의문(북소문) 사이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한양도성의 바깥마을 중 하나로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문을 중심으로 발전한 저층주거지 마을이었다.

이 지역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는데, 1993년에는 행촌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행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 2단계를 거치면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거지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15년 5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는 한양도성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재생을 위해 『성곽마을 행촌권역 재생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²³⁾

23) 서울시, 2016, 『성곽마을 행촌권 생활문화기록』, p.14.



[그림 3-9]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지 골목

행촌권역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 밀집지역을 이루면서도 도시형 한옥주택과 상가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구릉지 마을의 특성상 경사로와 가파른 계단을 통해 교통 및 보행 동선이 연결된다.



[그림 3-10] 행촌권 교남동 지역의 아파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행촌권역의 교남동 지역은 도시형 한옥주택이 다수를 이루는 저층 주거지에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옛 동네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행촌권 마을 공동체는 이들 새로운 신규 거주민을 공동체로 포용할 입장을 갖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고밀도의 저층주거지를 관통해서 지역의 문화자원인 성곽을 향해 접근할 수 있으며, 가는 길의 가로와 구릉지에 형성된 옛 마을 풍경은 행촌권 성곽마을 특유의 경관을 형성한다.

2)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일반 현황

성곽마을 행촌권역은 법정동인 행촌동이 대부분이며, 무악동, 홍파동, 송월동, 교남동, 사직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성곽마을 행촌권역의 면적은 계획수립 시 작단계에서 125,255㎡이었는데, 재생계획에서 도시농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 실행을 위한 대지확보가 요구되었고, 결과적으로 무악동 일부 및 시유지 등이 구역에 추가로 포함되었고, 계획수립이 불필요한 곳 중 일부 지역이 해제되어 최종적으로는 148,756.4㎡로 결정되었다.²⁴⁾

정부 차원의 인구정보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촌권을 구성하고 있는 법정동 가운데 무악동의 행정동은 무악동이며, 행촌동과 홍파동, 송월동은 행정동으로 교남동에 속해 있다. 그리고 권역 내 무악동과 사직동의 인구는 그리 많지 않고, 나머지 동들은 교남동에 포함되어 있기에 교남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인구는 4,748명, 평균연령 44.9세이다(제32회 종로통계연보 2017).

앞서 언급된 [표 3-2]의 성곽마을 노령세대 비율을 보면, 행촌권 성곽마을은 65세 이상 80세 미만 고령 세대주가 24.3%를 차지하여 전체 성곽마을의 평균보다 높으며 이화충신권, 삼선권 지역에 이어 3번째로 고령층 거주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서울시, 2016, 앞의 책, p.118.

3) 지역자원과 공동체: 도시농업과 행촌공(共)터

행촌권 성곽마을은 2015년 6월부터 『성곽마을 행촌권 재생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그로인 행촌(GROWN IN HAENGCHON)”이라는 비전 속에, ‘공동체와 함께 주민이 자라는 행촌’, ‘도시농업과 함께 다시 자라는 행촌’, ‘숨은 보석과 함께 미래로 자라는 행촌’ 만들기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마을특성화’,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행촌권은 구릉지라는 특수한 지형 속에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곳곳에 텃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2012년부터 진행한 도시텃밭조성사업으로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구릉지라는 지형적 특성은 채광과 공기가 좋아 도시농업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었으며,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의 옥상활용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이로써 ‘도시농업’을 재생을 위한 기반으로 하여 마을특성화 및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방향이 보완되었다. 이후 마을재생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및 공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마을의 거점공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상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나, 도성탐방로, 유희지 등을 고려해 5~6개소 정도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는 3개소에 거점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들 거점 공간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 도시농업 관련 거점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하였고, “행촌공(共)터”라는 이름을 붙였다.²⁵⁾ 이는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공(空)터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사용하면서 의미 있는 공간인 공(共)터가 되어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처럼 행촌의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마을 재생을 위해 구성된 ‘성곽마을주민추진위원회’의 적극 활동이 토대가 되었으며, 현재 3개의 행촌공(共)터와 육묘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25) 서울시, 2016, 앞의 책, p.364.



[그림 3-11] KBS 제1TV '6시 내고향'에 소개된 행촌권성곽마을
도시농업공동체(2017년 5월 19일)

(1) 행촌공(共)터 1호점(종로구 통일로 12길 30-23)

행촌공터 1호점은 성곽마을 행촌권의 첫 번째 거점시설이자 도시농업 중심 재생 사업의 컨트롤타워이다. 이곳은 식물약국, 마을박물관, 재생지원센터, 옥상경작 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농업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등 도시농업 확산의 초기 메카로 작용한다.



[그림 3-12] 행촌공(共)터 1호점

식물약국 “도시농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

1층에 위치한 식물약국은 식물약사가 상주하며 도시농업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다. 경작 기술과 노하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식물약국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물품을 전시·대여·판매하는 공간이며, 행촌에서 생산되는 1차, 2차 상품도 유통·판매한다.

마을 박물관 “마을박물관, 극장 등 다목적공간”

2층에 위치한 행촌동 마을박물관은 ‘행촌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전시공간이다. 과거 사진들을 전시하는 갤러리 공간과 현재를 보여주는 긴 창, 그리고 행촌의 미래를 생각하며 SNS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공간은 마을극장, 마을 모임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옥상경작소 “지상 가용면적이 적은 행촌동에 도시농업의 도모”

최상층에 위치한 옥상경작소는 행촌동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옥상 특성을 살리는 모종, 채소 등을 재배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시설이다. 지상 가용면적이 적은 도시농업에서 신경작지로 옥상을 발굴하고, 주민 보급을 위해 보급형 모델연구 등이 진행된다.

(2) 행촌공(共)터 2호점(종로구 사직로 1다길 11)

행촌공터 2호점은 행촌동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 텃밭으로 사용되던 공터에 만들어졌다. 건물 외벽은 유리로 설계되어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고, 지붕에서는 태양열 에너지가 생산된다. 건물 내부에는 LED조명과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갖춘 온실텃밭이 있어 추운 겨울에도 채소들을 키울 수 있으며, 외부에는 주민 공동텃밭과 함께 공동체가 교류할 수 있는 쉼터와 마을부엌이 마련되어 있다.



[그림 3-13] 행촌공(共)터 2호점 '느린공간'

행촌공터 2호점은 주민들의 생활과 조금 더 밀착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경작물을 재배·가공·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민 사랑방이 될 수 있는 마을부역의 특성을 담은 이름 '느린공간'으로 탄생되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처럼 행촌동의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행복한 마을,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뜻이 담겨있다. 마을 공유부역 '느린곳간'은 주민이 함께 반찬을 만들고 나눔도 실천하며, 아동요리교실과 생일파티, 각종 모임 등 공간으로 쓰인다.

(3) 행촌공(共)터 3호점(종로구 통일로18 나길 19-1)

행촌공터 3호점은 온실형태 건물로 날씨와 관계없이 연중 실습이 가능한 도시농업 교육장이다. 이곳은 그동안 방치되어온 사유지 유휴공간을 공공건축가와 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이 힘을 합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한 공동체 공간으로,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도시농업 양성교육이 시행되었다. 2층에는 경관 좋은 마을카페와 주민 커뮤니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되어 있다.

한편 행촌공터 3호점의 뒤편에는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관리하는 옥묘장과 도시텃밭이 있다. 농업이 생소한 도심 지역 주민들에게 모종보급을 쉽게 하고, 모종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도시농업 저변확대와 경작의욕 고취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옥묘장을 계획한 것이다. 옥묘장은 일회 최대 40,000여 개의 옥묘가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여름철에 출하하여 수익도 내고 있다. 또한 마을 내 산재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상자텃밭을 설치해, 도시농업의 생산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 옥상녹화를 유도함으로써 한양도성과 어우러지는 문화적 경관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악동 일대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텃밭은 2017년 6월 주민한마당 행사의 하나로 추진한 행촌권 성곽마을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채소수확 체험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3-14] 행촌공(井)터 3호점



[그림 3-15] 육묘장과 도시텃밭

행촌권 성곽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이런 앵커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공모를 준비하는 등 방안들에 대해 마을협의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4)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지역공동체 분석

성곽마을은 한양도성이라는 물리적이고 중요한 문화유산 자원이 있긴 하지만, 실제 도성과 성곽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살면서 겪어왔던 여러 사건, 다양한 경험을 간직한 주민들은 그 지역의 정체성 형성의 핵심 주체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지역 공동체를 연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거주민 자치모임인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회 K회장, Y총무, 지역 재생활동가 K 등 거주민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이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행촌권 성곽마을의 지역 공동체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집단회 형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항목별 인터뷰를 발췌 인용하였다.

(1) 유대감 및 소속감

성곽마을 주민은 30~40년 이상 오래 거주한 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마을이 형성되던 시기에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역사와 변화를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행촌권 성곽마을의 거주민들도 그곳에서 자라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정을 꾸리며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가 많다. 이러한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과 돈독한 유대관계는 성곽마을의 형성과 보존·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마을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더욱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 : 어렸을 때 이 마을의 초기모습, 성곽마을은 어떠했나요?

A : “그때 성곽은 일종의 놀이터였어요. 어렸을 적에 특별한 놀이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곽을 위주로 해서 놀기도 하고, 인왕산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때에 곤충 채집이나 식물 채집이라든지. 산이나 성곽을 위주로 해서, 평지가 아닌 성터를 이용해서 그런 놀이를 하고 학교의 과제물도 하고 그런. 상당히 성하고 가깝게 지낸 삶을 어렸을 때 산 거죠”

Q : 북정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비해 다들 젊어 보이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A : 이곳에서 태어나서 64년 차. 53년 차. 저 같은 경우는 8살 때 여기 와서 59년 차. 이 동네가 (토박이) 보통 40년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도 많고요.

(2) 거주지역과 정체성

행촌권 구성원들은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이라는 문화유산 지역의 정체성과 마을의 지리적 특성 및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화사업인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공동체’를 지역의 대표적 공동체로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격화된 활성화 사업은 거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Q : 행촌권 성곽마을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A : 성곽마을 권역 20여 개 마을 중에서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구릉지가 많고, 별이 강하고, 통풍이 잘돼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하고 있으며, 시유지 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용하지 않는 땅을 이용해서 도시농업을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양봉까지. 벌까지 키우고 있어요. 다른 구역과 다르게 그러한 도시농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아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고 특성 있는 마을로 도시 농업을 하는 중이죠.

Q : 양봉 등 농업 기술을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신가요?

A : 네 그렇죠. 우리 회원들이 하고 있죠. ‘도시농업공동체’ 회원들이. 우리 협의회 안에 ‘도시농업 공동체’라는 조직이 있어요.

Q : 재생사업 이전과 이후를 보면 마을 주민의 만족도, 마을 자부심, 정체성 같은 것들은 많이 변화했겠어요?

A1 : 오히려 살면서 그 지역의 역사문화라든가 자원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공감감이 형성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탐방객이 오면, 우리 동네에 뭐 볼 게 있어 오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같이 다녀보면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숨어 있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 전입 주민들과 같이 다니다 보면, 같이 섞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역사적인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은 본인의 과거 기억들과 같이 결부시켜서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림 3-16] 주민들이 생산한 꿀과 공동체 수상 상장

(3) 주민 간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

재생사업이 활성화되기 전 주민들의 자발적인 텃밭 조성과 같은 마을활동들이 추후 도시농업이라는 마을 특화사업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Q :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자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있나요?

A1 : 이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텃밭개념이 아닌 화분 개념으로 도로나 집 옆으로 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꽤 많아요. 그리고 ‘도시농업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무악동에서 구청장님이 쓰레기 50톤을 거둬내고 텃밭을 조성해놓은 데가 있어요. 3호공터 위쪽으로. 기본적으로 무악동 직능단체에서 분양을 받아서 3년 차 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한 건 아

니고, 통장이랑 협의해서 와서 물주고, 수확은 본인들이 해가고, 유치원 이런 데서도 해가고 이런 상태였었죠.

A2 : 그 이전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마다 옥상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간단한 농산물을 수확했었고요. 아무래도 오래 사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 피어나는 새싹에 대한, 그 파란색에 대한 동경들이 매우 많으세요. 지금도 보면 아침마다 옥상에 올라오셔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2013년 마을공동체 사업과 2014년도에 행안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커뮤니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때, 행촌동에 두 개의 텃밭이 조성됩니다. 사직터널 옆쪽에 40평이 있었고요. 행촌공터 2호점 부근에 축대 아래쪽에 40평 정도 마을 텃밭이 조성돼서, 거기서 지역 근처에는 주민들이 같이 경작하고 수확하는 형태로 해서, 매주 주말에 까만 봉지 하나씩 들고 어르신들이 내려오셔서 한 주 동안 먹을 먹거리를 가져가시고, 아까 말씀하신 텃밭이 가지는 소통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은 지나가면서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들을 전달을 해주시고, 간접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같이 해주시면 어떨겠냐 하고 제안도 드렸었고, 같이 하는 가운데서 지나가는 아이들은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여름에 물 주러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내려와서 그냥 돌 고르는 작업만 같이 했어도 그 안에서 세대를 넘나들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고, 텃밭을 벗어난 상태에서도 마을 왕래를 하면서 그 인연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게 행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Q : 혹시 도시농업 공동체 말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커뮤니티나 모임 같은 것들이 따로 있나요?

A1 :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협의체’가 있죠. 현재는 주민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주민협의체로 등록되어 있죠. 그

리고 북카페 회원들, 엄마들끼리 모임을 갖는 게 있고요. 지역 공동체로는 교남과 무악을 아우르고 있는 ‘일학마을 네트워크’가 있고요.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A2 : 지금 동의서를 받는 중이에요. 구청장 승인하에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운영체’가 결성될 거예요.



[그림 3-17] ‘도시재생GOGO마켓’에 행촌권 성곽마을 참가(2018년 3월 9일)

(4) 공동목표 추구를 위한 일체감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은 공동체의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었다. 마을협의체에서는 역량 있는 주민들의 역할과 발굴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마을해설사, 팜바리스타 등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Q : 마을해설사분들도 여기 주민이신가요?

A1 : 네 주민 출신입니다. 교육 진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워낙에 또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 워낙에 월등하신 분들이라. 실제로 우리가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이외에 많은 분이 살아오면서 봐왔던, 직접 겪어 왔던 일들이 결부되니까 다른 서울시의 문화해설사나 다른 해설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A2 : 그 10분의 해설사들이 대부분 우리 회원들이예요. 도시농업 회원들이죠. 저도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분들도 거의 다 회원들이라서 그분들이 앙커시설에 1호, 2호, 3호,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설명할 수 있죠.

Q : 마을해설사 프로그램이나 아까 도시 농업의 주민들 교육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A1 : 워낙에 많았습니다. 도시재생 대학도 있었고요.

A2 : 팜 바리스타 교육도 했고요.

A1 :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동네에다가 개업하신 분들도 있고, ... 그런데 이제 일반 바리스타가 아니고 앞에도 붙었듯이 팜 바리스타인 거죠. 실제로 커피 이외에 우리 지역에 나온 생산물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음료나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판 거죠.

(5) 자발적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촌권 성곽마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탄탄한 주민협의체가 ‘도시농업 특화마을’의 밑거름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도시농업의 태동이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Q : 도시농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자연자원이 가깝다 보니까 도시 텃밭 혹은 마을 가꾸기 등으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A : 그런 것으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도시재생 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과에서 과장서부터 해서 쪽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쪽 보니까 성곽 옆이면서도 아까 말한 구릉지가 많고 별이 좋고 통풍이 잘되니까 여기를 도시농업 특화지역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2015년 11월에 여러 분이 나와서 보시고 나서, 거기다 서울시 농업위원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보고서 지정을 해주면서 2016년 2월에 ‘도시농업공동체’가 발족이 됐죠. 그 이후에 3월에 육묘장이 지어졌고, 4월엔

양봉장, 벌꿀 사십 통을 해서 다양한 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이런 관 주도 형식의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다음은 성곽 마을에서 다양한 마을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한 외부 지역 활동가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에 실제로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 주민의 참여에 근간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발 빠른 행정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들도 지금 조속히 해야 한다. 행정 지원 빠지면 매우 시끄러울 동네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너무 빠르게 했다.”

(6) 공동체 확장성

행촌권 성곽마을 구성원은 그곳에서 자고 나란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새로 유입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공동체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마을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주민까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소통과 화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마을사업도 공동운명을 계획하고 있었다.

Q : 도시농업 이외에 마을에서 간접적으로 관심만 있는 분들까지도 포용할 법한 마을 행사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A1 : 그것도 기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3년 차니까 서서히 그런 것까지 해서, 참여 안 하는 마을 주민까지 같이 가면서 뭔가 그분들이 심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놔야 마을이 활성화가 되고,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 된다고 보는 거죠.

A2 : 작년에 경희궁 자리가 2천5백 세대, 1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되었고요. 그분들과 같이 가는 방법이 이제 마을 탐방이나 축제를 통해, 탐방은 특히나 현재 행촌권 성곽마을의 도시농업, 그다음에 역사문화 자원들의 공유 이런 것들로 진행되고 있고요. 마을 장터는 이제 오시는 분이 직접 재배도 할 수 있고, 수확도 해서 가져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상설

장터, 상설 매대라든지. 올해 공동체 사업에 선정되면 그것도 이제 경희궁 자이 안에 하고, 육묘장 부분에서 상설장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Q : 그럼 토박이 주민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에 대해.

A : 그중에 한 10~15%는 원주민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커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분들 중에는 통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심적인 교류를 통해 이른 시간에 화합돼야죠.

Q : 그럼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과 새롭게 바뀐 주민들과 교류하고 계시나요?

A : 작년 마을 축제의 타이틀이 ‘하나 되는 우리 마을 교남동’이었고요. 올해는 하나가 추가돼서 ‘희망으로 하나 되는 우리 마을 교남동’ 이렇게 지금 공동체 사업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마을 축제는 해마다 하는 진행되는 축제고요. 10월에 보통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 도성 축제가 그때쯤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와 같이 진행했던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탐방과 축제 때 하는 야간탐방이 있고요. 각 지점에서 각 성곽 마을마다 행사가 있는데, 이제 한양 도성 문화재에서는 그 각각의 행사들을 투어프로그램으로 해서 연계하고 있고요. 같이 홍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7) 협력적 거버넌스

행촌권 성곽마을은 네트워크를 비교적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 멘토시스템, 마을협의회, 성곽마을 권역별 네트워킹, 주민센터구청시청 등 지자체와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Q :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에 협의체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시는 건가요?

A1 : 아 우리 멘토가 계세요. 서울시 도시농업위원이고, 노원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대표가 계시는데, 그분이 3년 동안 멘토를 해주셨죠. 그런 아이디어도 창출해주시고, 농사도 어떻게 짓는지 많은 도움을 주셨죠. (권역별 네트워크) 이 자체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보는 거죠. 각 성곽마을의 그동안 사업 쪽의 분들.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함께 활동하는 밴드가 마을을 잇는 도성, 마음이 머무는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밴드거든요. 거기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Q : 이런 기획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려면 선생님 세 분이 기획하고 시에다 올라가는 형식인가요?

A1 : 협의체를 통하죠. 주민이 모여 있으니까 서울시나 종로구나 멘토 분들이나,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이니까요. 현재 성곽마을 전체에도 성곽마을 네트워크가 매월 정기모임으로 같이 참석하고 있어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하기도 합니다.

A2 : 협의체를 통해 날짜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판매도 그렇고, 서로가 이제 토론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들 도와주시니까요.

A3 : 여기 참여하는 분이 구나 시나 필요에 따라 동사무소와 같이 회의할 때에 같이 오셔서, 지원은 우리가 요청하든가, 본인들이 스스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04

결론 및 정책제언

1_커뮤니티 특성비교 및 연구 기대효과

2_결론 및 정책제언

04 | 결론 및 정책제언

1_커뮤니티 특성비교 및 연구 기대효과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들은 모두 한양도성과 성곽이라는 문화유산 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두고 형성되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성곽마을에 거주하게 되면서 또는 마을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구성원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고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해가고 있었다.

북정마을의 문화예술 자원과 행촌권의 자연자원 등 지역의 특별한 자원들을 활용한 마을사업은 이러한 공동체들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북정마을의 ‘북정을사랑하는모임’은 월월축제, 산신제 등 마을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행촌권은 ‘도시농업공동체’가 마을특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북정마을은 정월 대보름 율놀이대회 등 여전히 노년층의 마을문화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고 최근 새롭게 유입된 예술가들은 마을의 정겹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함께 어울려 추진하는 마을사업이나 문화예술 활동은 없었다. 5년 전만 해도 우수마을공동체로 인식되던 북정마을은 현재 마을사업을 위한 지원이 축소되는 등 지역 공동체 활동이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최근 도시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행촌권 성곽마을 공동체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연구기간 동안 진행된 현장연구를 통해 파악된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의 커뮤니티 특성은 다음의 표로 정리될 수 있다.

[표 4-1]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커뮤니티 특성비교

특성요소	성북 북정마을	종로 행촌권 성곽마을
정주(定住)적 소속감	·평상, 정자 등 생활영역 속에서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 ·평균 30년 이상 거주민 중심으로 지역소속감이 높음	·도시농업에 따른 농업지식과 노동력 공유에 의한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 ·평균 40년 이상 거주민, 노령 주민 중심으로 지역소속감이 높음
거주지역과 정체성 (장소혼*)	·북정마을의 장소 특성이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기여 ·문화유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으며 한양도성 지역의 관심으로 지역 자긍심 고양 ·거주기간이 긴 공동체 구성원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 신규거주민 포용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소극적	·별이 잘 들고 통풍 좋은 구릉지 등 자연자원은 특화된 정체성 형성에 기여 ·지역 애착심이 높으며 한양도성 방문객 때문에 역으로 지역가치 눈뜸 ·도시농업 등 마을사업에 적극적인 공동체 구성원 중심으로 형성, 신규 거주민 포용에 적극적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	·주민 간 마을행사 및 축제 참여율이 높으며 생활환경 요소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주민통합축제, 마을해설사, 주민바리스타 교육 등 활발한 상호작용 ·‘느린곳간’ 등 마을 공용공간에서 반찬나누기
공동목표 추구를 위한 일체감	·북정마을을 활성화에 대한 공동목표 추구, 개발 방법에서 입장 차이 존재 ·마을의 역사성, 문화예술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체 의식이 높음	·도시농업, 양봉, 도시마켓 참여 등 마을 활성화에 대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사업화 시행 ·도시농업공동체에서 주민운영협의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공유, 발전 가시화 ·공동체의 이익과 배분에 대한 모색 활발
자발적 참여의식 (주민조직 등)	·북정마을을 사랑하는 모임, 북성회, 통친회, 성북동새마을협의회, 성북동 마을협의회	·도시농업공동체, 일하마을 네트워크,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협의체, 교남동 주민자치 위원회
공동체 개방성	·원거주민의 신규주민에 대한 포용력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 ·신규주민은 예술가, 해외체류 및 유학경험자가 다수로 향후 공동체 문화에 변화 예고	·성곽탐방, 주민의 마을해설 등 외지인 대상 공동체 문화전파, 신규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성 확립에 적극적
협동적 거버넌스	·성북문화원, 서울KYC도성길라잡이 등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필요 ·마을 활성화를 위한 외부지원 필요	·서울시 도시농업과, 서울시 농업위원 등 협력관계 활발 ·도시농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멘토링 영입해 사업과 연계 모색

(*)장소혼(genius loci): 콘젠(Conzen)의 장소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장소에 대한 자긍심을 의미하며 문화유산지역에 형성된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기여

여러 차례 주민과 전문가 심층 면담 및 현장답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두 마을에서 형성된 주민 공동체가 문화유산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재생의 방식에서부터,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공통 목표의식의 공유에 이르기까지 공동체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접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참여하게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궁극적으로 지역 개발이나 기존 생활문화의 보호냐를 두고 당사자들 간에 대체적으로 합의와 결론이 이루어졌는지가 공동체 지속성의 주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북정마을은 수년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서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었다. 한편 행촌권은 문화유산 지역의 특수성을 받아들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타협점이 공동체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공동체 통합을 기반으로 생활기반 시설의 확대,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공동체 활동을 사업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지자체의 재생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자문을 줄 외부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는 등 지역 공동체 통합과 지역 활성화를 향한 마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지역재생 및 공동체 사업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지원이 공동체 활동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모습도 차이가 있었다. 북정마을은 현재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이지만 소규모로 축소된 마을행사가 주를 이루지만, 행촌권은 행촌공(共)터와 같은 앵커시설(하드웨어) 및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주민 및 공동체 교육(휴먼웨어) 등 지원들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정마을과 행촌권 성곽마을은 다양한 도시자원을 기반으로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연구는 이들 공동체가 단순한 거주민의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과 역할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형성의 토

대가 됨을 주목하고 두 지역의 특성을 현장연구를 거쳐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도시 내 지역 활성화의 주체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활성화 방안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둘째는 국가단위의 거대 토목 및 건축중심의 사업에서 파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역문화의 말단인 공동체를 분석·연구하고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무형적 가치를 지닌 커뮤니티 특성을 분석·조망할 수 있었다.

셋째는 세계에서 손꼽는 역사를 지닌 거대도시 서울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아우르는 독특한 지역문화의 보고로서 성곽마을의 주요 대상지를 현장 연구함으로써 도시문화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역생활문화와 도시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넷째는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요소로서 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화적, 인간적 가치의 회복과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토대연구를 제공할 수 있었다.

2_결론 및 정책제언

이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가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전제로 해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지역 활성화, 지역 문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둘째,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커뮤니티는 지역 자산을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여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셋째, 커뮤니티 활동은 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서 공동체가 공유한 가치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을 창출할 수 있는가?

넷째, 고유한 지역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지역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위 질문들은 비록 그 응집력과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성북 북정마을과 종로 행촌 권 성곽마을의 커뮤니티 분석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북정마을에 새롭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예술가는 이 마을이 그 어떤 장소도 갖고 있지 않은 고유성과 시간이 축적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이며 천천히 자생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개발 속도가 늦춰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기간 동안 살아있는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지켜본 연구진은 그들이 지켜왔던 속도와 시간의 축적이야말로 일률적인 발전기준과 속도로 계량화할 수 없으며 그들의 무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생적인 변화에 기반을 둔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성곽마을은 유산도 있지만, 느리게 변하고 천천히 발전하지만 견고한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것은 인간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문화는 환경이자, 삶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배제되어 논의될 수 없는 문제이다.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해 거주민, 주민조직, 이해관계자 등에게 마을재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북정마을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공동체 내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협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주목할 점은 북정마을에 예술가 및 해외유학파 지식인, 외국인 등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는 신규 거주인력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커뮤니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노년층 거주민과의 포용성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지역 공동체가 필수이자 핵심 요소이다. 권역별 성곽마을의 차별성과 공동체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생적인 발전을 이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70~80대 노년층 거주민이 많은 북정마을, 비교적 젊은 50~60대 장년층 주도의 행촌권 성곽마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곽마을 지역 공동체는 새로운 거주민의 유입을 통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거주민 유입과 폭넓은 주민들 참여, 마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주민 공감의 이루어질 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업 등이 모색될 수 있음을 현장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수 핵심인력 위주의 공동체를 지양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활동가 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마을사업 및 지역 인력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평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특화 사업 발굴, 이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주민과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꾸준히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행촌권 성곽마을은 주민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멘토로 초빙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거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사업 기획과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자치조직을 활용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섯째, 지역공동체 활동과 마을사업을 위한 앵커시설이나 중간조직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 유흥지 또는 빈 공간을 주민 공유시설로 활용하고 주민자치 모임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인력이 활용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던 북정마을은 마을 내 빈집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신규 주민으로 유입된 한 예술가는 이 공간이 북정마을의 독특한 지역성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수리해서 거주하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빈집을 활용해 마을에 대한 애착이 높은 신규 거주민을 유입시키는 방안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곱째, 공동체의식을 가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멘토 시스템, 지자체의 지원금, 성곽마을 공동체 네트워킹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성곽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권호·권상철,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pp.49-63.
- 김민지, 2012, “도시공간과 실천적 일상전술의 예술적 실행”,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6권, 2호, pp.37-84.
- 김세용·최봉문·김현수·이재준·조영태·김은화·최석환, 2013,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도시정보』, (371), pp.3-20.
- 독서모임 책술(역), 2012, 『역사도시 투어리즘, 놀와(Aylin Orbasi, 2000, *Tourist in Historic Towns*, Taylor & Francis).
- 서울시, 2016, 『성곽마을 성북권 생활문화기록』
- 서울시, 2016, 『성곽마을 행촌권 생활문화기록』
- 성북문화원, 2014, 『도심속의 무릉도원 성북동』, 성북문화원.
- 심영선, 2014, 『한양도성 인접 노후주거지 지역자산을 활용한 통합적 재생방안 연구: 성북구 성북동 북정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신중진·정지혜, 2010,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6권 4호.
- 행정안전부, 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여관현, 2013,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 pp.60-61.
- 온공간연구소·서울연구원·도가건축, 2014,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서울시.
- 이선영·남진, 2015,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지역자산의 의미와 활용실태 분석”, 『국토계획』, pp.123-151.
- 이병민·이원호, 2014,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문화변동과 지역발전: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 정호경·이종오, 2017, “도시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 다양성 연구: 런던 동부 문화소외지역의 문화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9호, pp.187-201.

한양도성연구소, 2014, 「2014 한양도성 마을특별전, 도성과 마을1」,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015, 「서울 한양도성」, 서울역사박물관.

UNESCO, 2010, 「유네스코 세계보고: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집문당.

Conzen M.R.G., 1981, “Historical townscapes in Britain: a problem in applied geography”, in J.W.R. Whitehand(ed.) *The Urban Landscape: Historic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London: Academic Press.

Jones Phil, Evans James, 2012, “Rescue Geography: Place Making, Affect and Regeneration”, *Urban Studies*, Vol.49(11), pp.2315-2330.

Lixinski Lucas, 2011, “Selecting Heritage: The Interplay of Art, Politics and Identity”,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2, no.1, pp.81-100.

Pratt Andy C., 2009, “Urban Regeneration: From the Arts ‘Feel Good’ Factor to the Cultural Economy: A Case Study of Hoxton, London”, *Urban Studies*, Vol.46, pp.1041-1061.

Rogers P., 2009, “Conservation and implementation”, in R.Zetter(ed.), *Conservation of Buildings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Polytechnic.

www.seoul.go.kr/(서울시)

<http://www.jongno.go.kr/>(종로구)

<https://www.yesn anum.org/>(나눔과미래)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7-01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연구

: 북정마을과 행촌권 성곽마을을 중심으로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3월 29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